

몽골 사람의 노탁은 물론 박보다는 범위가 큰 영역이며, 우리말의 고향처럼 범위가 가변적인 말이다. “제 노탁을 싫어할 사람이 없고, 제 어머니를 싫어할 아이가 없다.”, “남의 노탁의 부처님보다 제 노탁의 악마(가 낫다)”와 같은 속담은 몽골어의 노탁이 우리의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몽골 사람의 노탁 사랑은 같은 노탁 출신 씨름 선수를 자랑스러워하는 순수한 마음부터 시작하여 장관이,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예하 주요 보직에 같은 노탁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는 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노출된다. 유목 전통의 몽골에서 노탁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 골(gol ‘강’)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같은 강 사람들’<sup>21)</sup>이라는 말은 같은 강물을 먹고 자란 사람, 같은 강의 유역에서 유목하는 사람, 즉 한 고향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역시 유목의 범위가 고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유목민이 계절 이동의 시기를 고를 때 고려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가축이 새끼를 낳는 일이다. 5종 가축은 대개 3월 초순부터 4월 초순 사이에 작은 짐승인 양과 염소에서 시작하여 큰 짐승인 소, 말, 낙타 순으로 새끼를 낳으므로 봄살이 터에는 그보다 미리 당도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몽골어에서는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고 다시 머리 달(첫 달), 가운데 달, 꼬리 달(마지막 달)로 나누는데 봄의 첫 달, 가운데 달, 마지막 달은 각각 음력 1월, 2월, 3월 무렵이다. 이밖에도 새로 이동할 지역의 풀의 종류와 형편, 물 사정, 지형지물 등이 계절 이동의 시기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유목민은 초원에 자라는 다양한 풀은 같은 지역에서도 지형, 풍향, 그 해의 강수 등에 따라 분포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는 시기에도 차이가 있으며, 5종 가축이 그

---

하는 몽골인들의 삶이, 혹은 20세기 초반까지 몽골고원 내 대치를 왕래하거나 중국, 러시아 등지로 다니는 몽골 화물행단의 모습이 마치 정처 없는 떠돌이들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21) neg golyghan. 볼드 외(2008: 511).

풀을 좋아하는 철에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 유목민이 자기가 유목하는 지역의 풀의 종류와 형편, 물 사정, 기상 조건, 지형지물 등에 대해 해박한 것은 물론이다. 이밖에도 지역별 토양이라든지, 초지에 자생하는 모든 식물의 특성, 초지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몽골학자들의 수많은 연구가 있고, 개인 혹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식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도 있다.

### 3. 유목의 현실: 유목을 위협하는 요소들

#### 3.1. 정치 지형의 변화

필자는 2003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절멸위기에 처한 알타이 언어 조사에 참여하여 몽골, 러시아, 중국의 29개 몽골어계 방언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몽골계 민족들의 거주지에서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언어뿐 아니라 생활과 문화도 함께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sup>22)</sup> 오늘날 계절 유목은 몽골의 유목민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부리아트 몽골 사람들은 18세기 이래, 중국의 내몽고 사람들도 19세기부터 이미 자신들보다 수가 몇 배나 많은 러시아인들, 漢族들과 땅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도 광활한 초지가 필요한 수 천 년 전통의 계절 이동 방식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된지가 오래다.<sup>23)</sup> 그들

22) 이 프로젝트 및 현지조사가 수행된 몽골어계 언어, 방언들에 대해서는 김주원 외(2011), 유원수(2011: vii-ix) 등을 참조.

23) 러시아인의 부리아트 식민, 한족의 내몽고 이주에 대해서는 쿠드르야브체프(1940), 오용빌렉 외(1993) 참조. 위키페디아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면 현재 내몽고의 몽골족: 비 몽골족의 비율은 17: 83, 부리아트공화국의 부리아트족: 비 부리아트족의 비율은 30: 70이라고 한다.

은 이제 가축을 길러도 정착지역 농민들처럼 가두어 기르며, 목축이 주 수입원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주거도 해당 지역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를 따르게 되고, 유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돼지나 닭까지 집집마다 기르게 된다. 말달리기와 씨름, 활쏘기가 가장 중요한 종목인 몽골계 민족의 축제 나담(nayadam, naadam, naadan, naadn) 혹은 “사나이의 세 놀이(er-e-yin yurban nayadam, eriin gurwan naadam)에서 말들이 나이별로 경주를 벌일 수 있는 곳도 몽골뿐이다.<sup>24)</sup>



<그림 7> 중국 내몽고 오르도스 지역 몽골족인 나. 보수르씨의 댁. 본인은 목민으로 자부하나 농사수입이 목축소득을 능가할 것으로 짐작된다. (ASK REAL 아카이브. 2008년 8월)

24) 위 3종목을 겨루는 이야기는 몽골계 민족들의 설화, 신화, 현대 몽골문학에도 줄곧 등장한다. 이평래(2001), 유원수(2007a), 유원수(2007b) 등 참조. 몽골에서 나담은 연중 수시로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데 그중 가장 큰 규모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거행되는 국가 나담이다. 이 범국가적~범민족적 축제에서 말들은 보통 1~2, 2~3, 3~4, 4~5세, 큰말(5세 이상), 나이에 상관없는 씨수말로 나누어 12~26 km를 달리고, 쟁말(축대보말)들은 10 km 정도를 달린다. 이안나(2005: 107-122), 유원수(2009b: 231-239)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3.2. 사회 경제 사정의 변화

몽골국의 유목민들 가운데는 1992년부터 도입된 시장경제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목으로는 도저히 자녀교육을 비롯한 가족부양이 어려워 가축을 포기하고 다른 생업을 찾아 울란바타르나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다. 가족이 중병에 걸린다든지, 자연재해를 만나는 것도 유목민이 가축을 팔거나 잃고 도시 빈민으로 편입되는 지름길이다.

몽골국의 2010년 인구가 2000년에 비해 16.1% 증가하는 동안 울란바타르의 인구는 같은 기간 63.1%나 증가한 것도 이목 현상, 나아가 몽골의 유목이 수지맞는 생업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유목민들이 하는 말로 가축 수가 500마리 정도는 되어야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고들 하니 아마도 대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가축의 규모가 그 보다 작고, 따라서 초원에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국 고용의 33.5%를 담당하는 유목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에 지나지 않는 것도 유목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빈민으로 편입된 유목민들은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가난과 좌절감 속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기 쉽다. 알코올 중독은 가정 폭력으로 이어져 가정 파탄, 노숙, 구걸 등으로 낙착되기도 한다.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 빈민층은 온갖 범죄, 비위생적 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니겜 신문(Nüigem.mn)의 오란토야(2011.12.28) 기자는 도시로 떠난 유목민의 빈자리를 메우는 인력으로 중국인들이 초원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려와 반감이 섞인 언사로 보도하고 있다. 최근 몽골을 여행한 한국인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장성한 남성이 없는 가정에 머슴으로 들어가 일하다가 종당에는 그 집의 사위가 되어 유목민으로 뿌리를 내리며,

이러한 현상은 고비 지방에서 더 뚜렷하다고 한다. 중국인 혐오와 경계심이 깊고 넓게 뿌리 내린 몽골에서, 그것도 고비와 초원에서 중국인 남성을 식구로 불러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사양 산업인 몽골 유목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 3.3. 자연 환경의 악화

2011년 현재 몽골국 국토의 72%를 뒤덮은 사막화는 한국인의 생활과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유목민과 그들의 가축이다. 우너두르(2012.01.17) 신문의 오용체첵 기자는 몽골국 자연환경부가 2011년에 행한 조사에서 하천 551곳, 호소 483곳, 샘 1,587곳이 말라붙었으며, 들불로 1,395,661 헥타르, 독극물로 950,000 헥타르의 숲이 파괴된 것이 확인되었다는 자연 및 환경 관련 한 집회에서 장관의 보고를 전하고 있다.



<그림 8> 말라붙은 몽골의 하천. 2010년과 4월 28일(왼쪽)과 2012년 4월 24일 툽강의 송스골링 구르라는 다리에서 찍은 사진. 오용체첵 기자의 2012년 4월 25일자 우너두르 신문 기사에서.

바트히식(2010) 등 몽골국의 전문가들이 거론하고 있는 사막화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듭된 크고 작은 규모의 가뭄
- 2) 지구 온난화로 인한 만년설의 해빙, 호수, 강의 증발
- 3) 1990년대 사유화 이후 급증한 가축과 새로 유목에 편입된 이들의 부적절한 초지 이용
- 4) 들불과 산간 지역의 남벌
- 5) 수많은 광산 개발과 부적절한 사후조치 등.

결국 사람의 탐욕과 부주의, 그리고 자연재해가 합작해 낸 결과라 하겠다.

#### 4. 정리: 결론, 전망에 갈음하여

이 글에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몽골고원 주민들의 의식주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고, 나아가 몽골인의 행동양식, 사고방식과 정서, 사회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온 유목을 사람(유목민과 유목 조직), 가축(가변성과 취약요소), 목영지(유목의 물리적 범위와 유목민의 정서)로 나누어 살펴 보면서, 선행연구와 사료, 몽골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통계자료, 전문가들이 게시한 인터넷 자료, 언론 보도 내용, 몽골어계 언어들의 유목 관련 용어와 속담 등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확인하거나 논의하였다

- (1) 몽골고원 곳곳에 퍼져 있는 바위그림을 비롯한 고고학적 유물과 역사 기록을 참조할 때 대개 몽골 고원에서는 중석기시대부터(7천~1만5천 년 전) 가축을 기르는 일이 비롯되어 대략 3,500년 전~3,000년 전에는 유목이 지배 산업이 되었다.
- (2) 유목은 다양한 산업과 직업이 등장하게 된 21세기에도 201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15.9%, 수출의 12.5%, 고용의 33.5%를 부담할 정도로, 적어도 몽골국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의식주 생활에서도 역시 유목의 전통이 살아 있고, 그 영향이 지대하다.

- (3) 유목은 가축에 강한 애착이 있고, 가축 다루기와 초지 이용에 대해 통달한, 그리고 거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자들만이 영위할 수 있는 생업이다.
- (4) 유목민의 주거이자 가정인 게르의 구조와 공간 배치, 유목조직의 구성과 변천에 대한 역사적 공시적 기술을 통하여 유목민의 가족 구성과 유목 조직 호트아일의 규모,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성원의 대강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 (5) 가축 구성의 가변성과 가축의 취약성을 거론하면서 가축은 자연재해, 전염병 등 많은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매우 취약한 존재이고, 유목민의 경제도 매우 취약한 기반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6) 유목은 정처 없는 방랑 또는 평생 떠도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고장인 노탁(nutag)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살이 터로 옮겨 다니는 것이며, 오늘날의 몽골국에서 그 범위는 서울보다 조금 넓은 백(bag)을 넘지 않으리라고 추정하였다. 아울러 목영지이자 고향 땅인 노탁에 대한 몽골인의 애착을 속담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 (7) 필자의 눈으로 확인하고 느낀 바, 즉 오늘날 계절 유목은 몽골국의 유목민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고하면서 나담의 말달리기 경주 등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고, 이것이 러시아 및 한족의 몽골 고원 이주의 결과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 (8) 몽골국의 유목민들 가운데는 1992년부터 도입된 시장경제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목으로는 도저히 자녀교육을 비롯한 가족부양이 어려워 가축을 포기하고 다른 생업을 찾아 울란바타르나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가족이 중병에 걸린다든지, 자연재해를 만나는 것도 유목민이 가축을 팔거나 잃고 도시빈민으로 편입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이야기 하면서 몽골국의 2010년 인구가 2000년에 비해 16.1% 증가하는 동안 울란바타르의 인구는 같은 기간 63.1%나 증가한 것도 이목 현상,

나아가 몽골의 유목이 수지맞는 생업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하였다.

- (9) 도시빈민으로 편입된 유목민들은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가난과 좌절감 속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기 쉽고, 알코올 중독은 가정 폭력으로 이어져 가정 파탄, 노숙, 구걸 등으로 낙착되기도 하며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 빈민층은 온갖 범죄, 비위생적 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도시로 떠난 유목민의 빈자리를 메우는 인력으로 중국인들이 초원에 등장하고 있는 점을 소개함으로써 사양 산업인 몽골 유목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하였다.
- (10) 2011년 현재 몽골국 국토의 72%를 뒤덮은 사막화는 유목민과 그들의 가축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작용하는 점, 그 원인은 사람의 탐욕과 부주의, 그리고 자연재해가 합작해 낸 결과라고 요약하였다.

위 (7), (8), (9), (10)에 거론된 상황은 유목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나아가 유목민과 가축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이 되어 결국 몽골고원의 유목은 몽골국에서조차 쇠퇴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피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유목의 산물에 의존하는 식생활, 여타 산업 부문이 고용을 획기적으로 창출하지 못하는 현실, 유목과 초원에 대한 몽골인들의 애착과 자부심 등으로 인해 이 산업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에 걸쳐 몽골국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그루쎬 René Grousset,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서울: 사계절.
- 김주원·유원수·이용성·최문정·최운호·이호영·전순환·권재일(2011), 『언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알타이언어 문서화』, 파주: 태학사.
- 라시드 앓 딘, 김호동 역주(2002), 『칭기스칸 기』, 라시드 앓 딘의 집사 2, 서울: 사계절.
- 내몽고대학 內蒙古大學蒙古學研究院蒙古語文研究所(1999), 『蒙漢詞典』,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 류기선(1993), 「몽골의 유목 생활과 방목 기술」, 『한몽공동학술연구』 2, 88-117, 한몽학술조사연구협회/몽골과학아카데미.
- \_\_\_\_\_(1995), 「다리강가 친족 용어」, 『한몽공동학술연구』 4, 261-297, 한몽학술조사연구협회/몽골과학아카데미.
-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Mongol Ulsyn Shijleh Uhaany Akademi Tüühiin Hüreelen(2004), *Mongol Ulsyn Tüüb, tergüün boti: Nen ertnees XII zuunii dund üye*, D. Tsewendorj(Redaktor), Ochir, A.(Zöwlöliin darga), Ch. Dalai, N. Ishjamts, Sh. Natsagdorj, B. Shirendew, J. Boldbaatar, L. Jamsrang, I. Ishdorj.
- 몽골인민공화국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Bügd Nairamdah Mongol Ard Ulsyn Shinjleh Uhaany Akademi Tüühiin Hüreelen(1968), *Mongol Ulsyn Tüüb, deed boti: 1604-1917*, B. Shirendew, Sh. Natsagdorj, N. Ishjamts, H. Perlee, Sh. Bira, N. Ser-Odjaw, M. Sanjidorj, B. Tüded(Yeröönhii redaktsiin gishüüd), Ulaanbaatar: Ulsyn Hewleliin Hereg Erhlel Horoo.
- 몽골국 식량, 농목, 경공업부 Hüns, Hödöö aj ahui, Höngön üildweriin yaam (2011.01.24), *Tsag üyeiin medeel* 2011(1). 2012.04.08.  
<http://www.mofa.gov.mn/mn/images/stories/busad/tsag01.pdf>
- 몽골국 식량, 농목, 경공업부 Hüns, Hödöö aj ahui, Höngön üildweriin yaam(2012 a), *Mal aj ahui, Ulsyn ediin zasagt hödöö aj abuin salbaryn ezlel bair suuri*. 2012.04.08. [http://www.mofa.gov.mn/mn/index.php?view=article&catid=31%3A2009-02-23-06-26-28&id=35%3A2009-02-23-06-28-04&format=pdf&option=com\\_content&Itemid=29](http://www.mofa.gov.mn/mn/index.php?view=article&catid=31%3A2009-02-23-06-26-28&id=35%3A2009-02-23-06-28-04&format=pdf&option=com_content&Itemid=29)

몽골국 식량, 농목, 경공업부 Hüns, Hödöö aj ahui, Höngön üildweriin yaam (2012b), *Mongol malyn ontslog*. 2012.04.08.

[http://www.mofa.gov.mn/m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6&Itemid=55](http://www.mofa.gov.mn/m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6&Itemid=55)

몽골국 식량, 농목, 경공업부 Hüns, Hödöö aj ahui, Höngön üildweriin yaam ((2012c), *Tsag üyeiin medeeler* 2011(12). 2012.04.08.

<http://www.mofa.gov.mn/mn/images/stories/busad/tsagu12.pdf>

몽골국통계청 Mongol Ulsyn Ündesnii Statistikiin Horoo(2010), *Mongol Ulsyn Statistikiin Embtgel*, Ulaanbaatar.

몽골국통계청 Mongol Ulsyn Ündesnii Statistikiin Horoo(2012), *Hün am, oron suutsny 2010 ony ulsyn toollogo*. 몽골국 통계청 웹사이트. 2012.05.28.

<http://www.toollogo2010.mn/yazi.php?category=Result>

바르다예프 외 Bardaev, E. Ch., Djambinova, R. A., Kalyaev, A. L., Kichkov, A. Sh., Korsunkiev, Ts. K., Monraev, M. U., Muniev, B. D., Pavlov, D. L., Ubushaev, N. N. (2004), *Bi Hal'mg Kel Daschanav: Xal'mag-oros tol'*, Elst: Hal'mg dktr gharghch.

바트히식 Barkhisig, O. (2010.1.25), *Environment problem and Soil degradation in Mongolia*.

<http://www.scribd.com/doc/25769668/Environemnt-Soil-Erosion-in-Mongolia>

볼드 외 Bold, L.(Yeröönhii redaktor) nar(2008), *Mongol belnii delgerengüi tailbar tol* I-V. Shinjleh Uhaany Akademi Hel Zohiolyn Hüreelen, Ulaanbaatar: Soyombo printing hewleh gazar.

사마천 司馬遷, 『史記』 卷百一十, 『匈奴列傳』 第五十, 維基文庫, 自由的圖書館, 2012.4.8.

<http://zh.wikisource.org/zh-hant/%E5%8F%B2%E8%A8%98/%E5%8D%B7110>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2012.04.15, *Climatological Information*. 2012.04.08.

울란바타르 <http://worldweather.wmo.int/119/c00229.htm>

서울 <http://worldweather.wmo.int/095/c00231.htm>

오란토야 Urantuyaa, G.(2011.12.28), “Mongolyn hödöö deh Hyatad malchuud”, *Montsame*, 2012.04.08. <http://news.niigem.mn/content/26564.shtml>

오용빌렉 烏云畢力格, 成崇德, 張永江(撰寫)(1993), 蒙古民族通史(第四卷), 內蒙古大學出版社: 呼和浩特.

- 오용체책 Oyuuntsetseg, R.(2012.01.17), “Baigal’ orchingüigeer högjil ügüi”, *Önөөдөр*. 2012.04.08. <http://www.mongolnews.mn/i/26934>
- 오용체책 Oyuuntsetseg, R.(2012.04.25) “Tuul orshih uu, es orshih uu”, *Önөөдөр*. 2012.04.25. <http://www.mongolnews.mn/p/30580>
- 유원수, 김태정 · 손주영 · 김대성 편(1997), 『유목을 생업으로 하는 몽골인의 음식문화』, 『음식으로 본 동양문화』 104-132, 서울: 대한교과서.
- \_\_\_\_\_(2004), *몽골비사*, 서울: 사계절.
- \_\_\_\_\_(2007a), 『몽골 대서사시 게세르 칸』, 파주: 사계절.
- \_\_\_\_\_(2007b), 차드라발 로도이담바, 『맑은 타미르강』 1-2, 서울: 민음사.
- \_\_\_\_\_(2009a), *몽골의 언어와 문화*, 서울: 소나무.
- \_\_\_\_\_(2009b), 『몽골비사 解題』, 『중앙유라시아연구소 2009년도 문명아카이브 해제 프로젝트』, 서울대학교 중앙유라시아연구소. 2012.04.08  
<http://cces.snu.ac.kr/com/08mgbs.pdf>
- \_\_\_\_\_(2010), 『유목전통과 몽골사람들의 주거문화』, 『제6회 문명포럼: 집의 문명, 문명의 집』, 29-4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 서울대학교미술관.
- 유원수 Yu, Wonsoo(2011), *A Study of the Mongol Khammigan Spoken in Northeastern Mongolia*, Seoul: SNUPRESS.
- 위키피디아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 Mongols-map(2005.07.16) 2012.05.28: <http://en.wikipedia.org/wiki/File:Mongols-map.png>
- Inner Mongolia (2012.05.16.), 2012.05.28.: [http://en.wikipedia.org/wiki/Inner\\_mongolia](http://en.wikipedia.org/wiki/Inner_mongolia)
- Buryatia(2012.05.18.), 2012.05.28.: <http://en.wikipedia.org/wiki/Buriatia>
- 이안나(2005), 『몽골인의 생활과 풍속』,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서울: 첫눈에.
- 잠발도르지 Jambaldorj, Sum'yaa(1996), *Morin erdene*, Ulaanbaatar: “Mongol aduu” niigemleg.
- 체렌소드눔 지음, 이평래 옮김(2001), 『몽골 민간 신화』, 서울: 대원사.
- 체레미소프 Cheremisov, K. M. (1951), *Buryat-mongol'sko-russkii slovar'*, Moskva: Gosudarstvennoe Izdatel'stvo Inostrannyx i Natsional'nyx Slovarei.
- 체웬도르지 Tseweendorj, D, Ochirhuyag, Ts.(1999), “Ih tengeriin amny hadny zurag”, *Mongol nutag dab' tüüb soyolyn dursgal(Sedewchilsen lawlab)*, Mongolyn Hü

müünlegiin uhaany Arfdemi, Ulaanbaatar: Gamma Agency.

치맥 Chimeg, Sh.(2012.4.11.10:55:33), “Hawarjilt хүндэрсэн зарим аймагт 3900 тонн өвсөөр тусалана”, *MONTSAME*. 2012.04.12.

<http://www.montsame.mn/index.php?com=news&id=2012041116>

쿠드르야브체프 Kudryavtsev, Fyodor Aleksandrovich(1940), *Istorija buryat-mongol'skii naroda: (ot KZVII v. do 60-ch godov XIXS v.)*, Buryat-mongol'skii gosudarstvennyi nauchno-issledovatel'skii institut yazyka, literartury i istorii, 蒙古研究所 역 (1943), 『ブリアート蒙古民族史』, 東京: 紀元社.

탈라트 테킨 Talat Tekin, 이용성 역(2008), 『돌궐 비문 연구: 쥬 토킨 비문, 빌개 카간 비문, 투뉴쿠크 비문』, 서울: 제이앤씨.

원고 접수일: 2012년 4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2년 5월 21일

계재 확정일: 2012년 5월 24일

ABSTRACT

---

The Tradition and Present Situation of Pastoral  
Nomadism in the Mongolian Plateau

- With special reference to nomads, their livestock,  
and pasture land -

Yu, Won Soo

This paper introduces the tradition of pastoral nomadism in the Mongolian plateau which began during the Mesolithic period (15,000~7,000 years ago), and which still has influence on the behavior, life style, emotions, and social structure of the Mongols. For this aim, Section 1 (Tradition of pastoral nomadism in Mongolian plateau) tries to make readers understand that nomadism does not mean endless wanderings but rather seasonal movement within the nomad's native land, *nutag*, basically four times a year.

In Section 2 (Three major factors of pastoral nomadism in the Mongolian plateau), three basic factors of Mongolian nomadism are discussed: nomads, five sorts of livestock, and the pasture land. As for the nomads, their knowledge, experience, attachment, and concerns regarding their livestock and pasture land are described together with their felt tent

home and basic organization of nomadic life, that is *ger* and *hotail*. As for the five sorts of livestock (sheep, goat, horse, cattle, camel), the number for each type are cited from recent government statistics, and the variability and vulnerability of the animals are explained. The meaning or physical-emotional span of *nutag*, the native land of the nomads, is also described in Section 2.

Section 3 (Situation of pastoral nomadism: threats to pastoral nomadism) examines the present situation of pastoral nomadism in the Mongolian plateau, more specifically the major threats to nomadism itself and to nomadic society. The division of the area by Russia, Mongolia, and China, and the migration of Russian and Chinese populations into the plateau is mentioned as the political situation which caused the major unfavorable changes to nomadism. Social-economic aggravation towards nomadism is pointed out as the unfavorable factor which forces the nomads to degenerate into the urban poor. Environmental destruction including the desertification of pasture land is introduced together with the opinions of the Mongolian experts who blame human greed and negligence.

In Section 4 (Summary: Conclusion, prospect), the above discussion is summarized into 10 points to assist scholars who are not Mongol specialists, and a rather brief and pessimistic prospect is presented for the future of Mongolian pastoral nomadism.